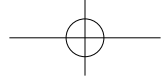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 연구사

김동혁(김신대)

본 소고의 목적은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다.¹⁾ 히브리대학의 후르비츠(Avi Hurvitz)는 1960년대부터 언어 자료만을 가지고 성서 본문의 연대를 결정하는 방법론을 정립해 왔는데, 그 전제는 다음과 같다. (1) 성서 히브리어는 포로기에 결정적인 변화를 겪었기에 포로기 이전의 ‘초기 성서 히브리어’(Early Biblical Hebrew, EBH)와 그 이후의 ‘후기 성서 히브리어’(Late Biblical Hebrew, LBH)는 형태와 시기에 있어서 분명하게 구분된다.²⁾

- 1) 이 연구는 한국구약학회 제95차 춘계학술대회(2014년 4월 25일, 대전신학대학교)에서 발표한 원고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논찬을 통해 제안과 비평을 주신 김유기 교수께 큰 감사를 표한다.
- 2) ‘초기 성서 히브리어’와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닌 표현들로 ‘고전 성서 히브리어’(Classical Biblical Hebrew)와 ‘표준 성서 히브리어’(Standard Biblical Hebrew)가 있다. 우리가 다루려는 논쟁에 참여하는 학자들은 대개 세 표현을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본 소고에서는 경제성을 위해 ‘초기 성서 히브리어’를 주로 사용한다. 이 용어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의미 구분을 위해서는 Dong-Hyuk Kim, *Early Biblical Hebrew, Late Biblical Hebrew, and Linguistic Variability: A Sociolinguistic Evaluation of the Linguist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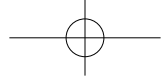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2) 따라서 언어 자료만을 가지고 본문의 연대를 결정할 수 있다. 후르비츠의 방법론은 학계에 금방 받아들여졌고 10여 년 전까지 합의된 정설로 인정되었다. 새천년이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뀐다. 후르비츠의 이론에 반대하는 ‘도전자들’(아래 참조)이 다음과 같이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1) 초기 성서 히브리어와 후기 성서 히브리어는 형태와 시기에 있어서 불연속적이지 않다. (2) 초기 성서 히브리어와 후기 성서 히브리어는 포로기 이후 성서 저자들이 선택해 사용할 수 있었던 스타일일 뿐이다. (3) 그러므로 언어 자료만을 가지고 본문의 연대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언어학적 연대 결정’ 논의는 구약학 내에서 비교적 특수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쟁과 관련된 연구물의 수는 최근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또 논쟁 밖에서 있다고 할 수 있는 학자들 도 그 과정을 흥미 있게 지켜보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그간의 연구를 개관하는 작업이 꼭 필요할 터인데 이 작업이 아직까지 우리말로 이루어진 적은 없다.³⁾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으로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 방법론을 소개하고 그 지지자들의 연구물을 개관한 후, (2) 반대자들의 주장들을 살피고 나서, (3) 새로운 시각으로 논의에 참여하는 최근의 연구들을 소개한다.⁴⁾

Dating of Biblical Texts (VTSup 156; Leiden: Brill, 2012), 19 n. 36을 참조하라.

- 3) 김동혁,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에 관한 논쟁과 언어 변이성 개념에 근거한 그 이론적 평가”, 『Canon&Culture』 6권 2호 (2012년 가을), 137-164가 언어학적 연대 결정에 관해 논의하지만 본격적인 연구사는 아니다. 이 주제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한 또 다른 한국인 학자로는 유윤종, 신성윤을 들 수 있다. 아래 논의 및 ‘참고문헌’을 보라.
- 4) 성서 본문의 연대 결정에 관한 논의는 성서 히브리어의 통시적 연구의 하위 주제이다. 김유기, “성서 히브리어의 시대 구분에 관한 최근 연구 동향”, 『성서마당』 82호 (2007년 여름), 62-71은 성서 히브리어의 통시적 연구 일반과 그 연구사를 간략히 다룬다. 김유기는 후르비츠 이전의 학자들에서 시작하여 Ian Young (ed.), *Biblical Hebrew: Studies in Chronology and Typology* (JSOTSup 369; London: T&T Clark, 2003) 까지를 다루는데(Biblical Hebrew에 관해서는 아래 논의를 보라), 본 연구는 김유기의 연구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 히브리어의 통시적 연구 일반이 아닌 본문의 연대 결정이란 주제에 집중한다. 둘째, 그러한 이유로, 또 보다 깊은 논의를 위해, 본문의 연대 결정 방법론을 ‘창시’했다고 할 수 있는 후르비츠



1.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에 관한 전통적 이해

1) 후르비츠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 방법론

후르비츠는 1960년대부터 성서 본문의 연대를 언어 자료만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 천착했다.⁵⁾ 후르비츠가 확립했고 지금도 사용되는 언어학적 연대 결정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어떤 개별 언어 요소(음운, 철자, 단어, 표현, 구문 등)가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으로 규정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언어학적 분포(linguistic distribution) 조건은, 이 개별 언어 요소가 포로기 이후 저작임이 확실한 책들(에스더, 다니엘, 에스라-느헤미야, 역대기)에서 주로, 널리 쓰여야 함을 뜻한다. 둘째, 언어학적 대조(linguistic contrast 또는 opposition) 조건은 논의 중인 언어 요소와 대조되는 언어 요소가 초기 성서 히브리어에 존재해야 함을 뜻한다. 이때 초기 성서 히브리어의 언어 요소는 초기 성서 히브리어를 예시하는 책들(주로 오경과 신명기 역사서)에 주로 혹은 전적으로 쓰이면서 그 의미와 환경이 같거나 비슷해야 한다. 이로써 논의 중인 언어 요소가 포로기 이전에는 안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이 언어 요소는 동시대 혹은 그 이후 시대의 성서 외 자료(extrabiblical sources)에서도 발견되어야 한다. 이로써 이 언어 요소가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 당대의 특징적 언어였음이 보다 확실해진다. 이때 이용되는 자료는 사해 두루마리, 히브리어 벤 시라, 미시나 히브리어(Mishnaic Hebrew) 자료, 제국 아람어(Imperial Aramaic) 자료 등이다.

와 그 이후 연구사만을 다룬다(후르비츠 이전 연구사를 위해서는 김유기, 윗글; Mark F. Rooker, *Biblical Hebrew in Transition: The Language of the Book of Ezekiel* [JSOTSup 90; Sheffield: JSOT Press, 1990], 23-33; Kim, 윗글, 11-18을 참조하라). 셋째, 본 연구는 김유기가 간략하게 다룬 Young (ed.), *Biblical Hebrew*를 보다 자세히 다루고, (당연한 말이지만) 더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발표된 연구들도 다룬다.

5) 후르비츠의 초기 연구로는 Avi Hurvitz, "The Usage of פֿ and פֿ in the Bibl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Date of P", *Harvard Theological Review* 60 (1967), 117-121이 있다.



이에 더하여 후르비츠는-개별 언어 요소가 아닌-본문(혹은 책)의 연대를 결정하기 위해서 축적(accumulation)을 네 번째 조건으로 상정했다. 어떤 본문이 후기 성서 히브리어 본문으로 규정되려면 그 본문에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적인 언어 요소들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즉, 어떤 본문에 위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이 다수 있다면 그 본문은 포로기 이후 저작으로 규정될 수 있다.⁶⁾

2) 전통적 이해: 후르비츠의 방법론을 이용한 연구들

후르비츠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 방법론은 학계에 곧 영향을 끼쳤다.⁷⁾ 후르비츠 자신을 포함한 몇몇 학자들이 이 방법론을 사용해서 저작 시점이 합의되지 않은 여러 본문/책의 연대를 결정했다. 후르비츠는 제사장 문서, 에스겔, 시편의 시들, 욥기 산문 부분, 전도서의 언어를 각각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유사한 주제를 가진 제사장 문서와 에스겔의 경우, 두 문서가 언어학적으로 대조되는 형태를 사용할 때에 후자는 언제나 포로기 이후 시대의 언어 형태를 쓰고 전자는 언제나 포로기 이전의 형태를 쓴다. 이로써-후르비츠에 따르면-제사장 문서가 에스겔보다 언어학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점이 증명된다.⁸⁾ 시편의 시들에 관해서는, 몇몇 시들은 포로기 이후에 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다른 몇몇 시들은 그 가능성이 비교적 높음을 논증했다.⁹⁾ 욥기 산문

-
- 6) 후르비츠의 방법론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로는 김동혁, *윗글*, 142-145를 참조하라. 후르비츠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 방법론은 후르비츠뿐만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여러 연구물에서 정리하였는데, 후르비츠 자신이 초기에 정리한 것으로는 Hurvitz, "Linguistic Criteria for Dating Problematic Biblical Texts", *Hebrew Abstracts* 14 (1973), 74-79를 들 수 있다.
- 7) 이하 후르비츠의 방법론이 적용된 연구들에 대한 개관은 Kim, *윗글*, 23-26을 참고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Kim, *윗글*과 거기에 인용된 문헌을 참조하라.
- 8) Hurvitz, *A Linguistic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estly Source and the Book of Ezekiel: A New Approach to an Old Problem*(CahRB 20; Paris: J. Gabalda, 1982), 170.
- 9) 후르비츠에 의하면, 포로기 이후 시대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들은 103; 117; 119; 124-125; 133; 145이고, 확실하진 않지만 포로기 이후에 쓰였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시들은 19; 28; 33; 40; 45; 63; 75;



부분은 늦은 시기(즉, 포로기 이후 시기)의 특징들을 드러낸다.¹⁰⁾ 전도서의 경우는, 본문의 최종 형태가 제2 성전기 본문들의 언어적 특징의 일부를 보여 준다.¹¹⁾ 버지(Ronald L. Bergey)는 후르비츠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포로기 이후 시대의 히브리어 산문 저작”인 에스더기의 언어를 분석했다.¹²⁾ 그는 48개의 문법적, 어휘적 특징을 살핀 후, “포로기 이후 성서 히브리어 산문의 언어적 환경 속에서 에스더기의 위치는… 포로기 이후 시대 초기보다는 후기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내렸다.¹³⁾ 루커(Mark F. Rooker)도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여 에스겔서의 20개의 문법 요소와 17개의 어휘 요소가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임을 보여 주었고, 이 중 31개의 경우 각각에 상응하는 초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 또한 같은 책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¹⁴⁾ 그렇다면 에스겔서에는 초기 성서 히브리어와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언어학적 대조가 31쌍 들어 있는 것인데, 이에 근거하여 루커는 에스겔서의 언어가 “과도기 성서 히브리어의 전형”이라고 주장한다.¹⁵⁾ 라이트(Richard M. Wright)는 후르비츠의 방법론으로 야훼 문서의 연대를 측정한다. 그는 야훼 문서 언어의 형태론적, 구문론적, 숙어적, 어휘적 특징을 분석하고

104; 106–107; 109; 111–113; 116; 126; 128; 135; 137; 143; 146–148이다. Hurvitz, *The Transition Period in Biblical Hebrew: A Study in Post-Exilic Hebrew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Dating of Psalms* (Jerusalem: Bialik, 1972; in Hebrew), 70–176.

10) Hurvitz, “The Date of the Prose-Tale of Job Linguistically Reconsidered”, *Harvard Theological Review* 67 (1974), 17–34. 후르비츠의 이 결론을 나중에 영(Ian Young)이 비판한다. 아래를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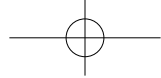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11) Hurvitz, “The Language of Qoheleth and Its Historical Setting within Biblical Hebrew”, Angelika Berlejung and Pierre Van Hecke (ed.), *The Language of Qoheleth in Its Context: Essays in Honour of Prof. A. Schoors on the Occasion of His Seventieth Birthday* (OLA 164; Leuven: Peeters, 2007), 34.

12) Ronald L. Bergey, “The Book of Esther: Its Place in the Linguistic Milieu of Post-Exilic Biblical Hebrew Prose: A Study in Late Biblical Hebrew” (Ph.D. diss., Dropsie College for Hebrew and Cognate Learning, 1983). 인용은 Bergey, *윗글*, 1에서 온 것이다.

13) Bergey, *윗글*, 185. 에스더기의 문법 및 어휘의 특징에 대한 버지의 분석과 결과는 그의 논문 27–167쪽을 참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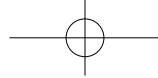
14) Rooker, *윗글*, 65–176, 183–184.

15) Rooker, *윗글*, 186. 보다 자세한 논의는 아래를 보라.



각 특징을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들과 대조하였다. 라이트에 따르면 야훼 문서의 언어는 포로기 이후 시대의 언어와 대조된다.¹⁶⁾ 신성윤은 후르비츠의 지도를 받은 학위 논문을 통해 학개-스가라-말라기 본문이 후기 성서 히브리어 층에 속함을 논증했다.¹⁷⁾ 렌드스버그(Gary A. Rendsburg)는 히브리어의 통시성을 다루는 후르비츠의 방법론을 공식적 기술(記述)에 적용함으로써 그 활용 범위를 확장했다. 그는 응용된 방법론을 사용하여 고대 이스라엘에 지역 방언—특히 ‘(북) 이스라엘 히브리어’(Israelian Hebrew)—이 존재했음을 보여 주는 증거가 성서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어떤 언어 요소가 북 이스라엘 방언으로 규정될 수 있으려면, 첫째, 이 언어 요소는 북 이스라엘에서 유래한 본문들에 주로, 널리 쓰여야 하고(언어학적 분포), 둘째, 그것과 대조되는 (남) 유다 방언의 특징이 발견돼야 하고(언어학적 대조), 셋째, 이 언어 특징과 연결될 수 있는 언어 요소가 북왕국과 이웃하고 있는 지역의 언어들(예컨대, 아람어, 우가리트어, 페니키아어, 요르단 동쪽 지역의 언어들)에서 발견되어야 한다(성서 외 자료). 넷째, 어떤 본문이 북쪽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북 이스라엘 방언의 특징들이 그 본문 안에 충분히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축적).¹⁸⁾

-
- 16) Richard M. Wright, *Linguistic Evidence for the Pre-Exilic Date of the Yahwistic Source* (LHB/OTS 419; London: T&T Clark, 2005), 161. 라이트의 작업은 야훼 문서가 제2 성전기의 저작이라는 일부 학자들의 최근 주장에 언어 자료에 근거해 반박하는 것이다. 야훼 문서의 연대와 관련한 최근의 논쟁에 관해서는 Ernest Nicholson, *The Pentateuch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Legacy of Julius Wellhause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132–160을 참조하라.
- 17) Seoung-Yun Shin, “A Lexical Study on the Language of Haggai–Zechariah–Malachi and Its Place in the History of Biblical Hebrew” (Ph.D. diss., Hebrew University, 2007). 신성윤의 후속 연구로는 “고전 히브리어의 성의 중성화 현상에 비추어 본 학개-스가라-말라기 언어의 역사적 발전 상황”, 『언어와 언어학』 42집 (2008년 6월), 113–131; “고전 히브리어의 미완료 2/3인칭 남성복수 동사 어미형태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지중해지역연구』 11권 1호 (2009년 2월), 105–131; “후기 성서 히브리어에 나타나는 아람어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정목적어 표시어 ־의 사용을 중심으로”, 『언어와 언어학』 45집 (2009년 6월), 137–161이 있다.
- 18) Gary A. Rendsburg, *Linguistic Evidence for the Northern Origin of Selected Psalms* (SBLMS 43; Atlanta: Scholars, 1990), 15–17; idem, *Diglossia in Ancient Hebrew* (AOS 72; New Haven, Conn.: American Oriental Society, 1990), 31–33; idem, *Israelian Hebrew in the Book of Kings*



후르비츠와 그를 따르는 학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는 초기 성서 히브리어와 후기 성서 히브리어가 형태적으로 분명히 구별될 뿐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불연속적이라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포로기에 일어난 히브리어의 변화는 결정적이었으므로 이후의 성서 기자들은 더 이상 초기 성서 히브리어를 쓸 수 없었다. 히브리어의 역사에 대한 이런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초기 성서 히브리어와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시간적 단절이야말로 후기 성서 히브리어(또는 초기 성서 히브리어)의 프로파일에 근거하여 본문의 연대를 결정할 수 있게 만드는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¹⁹⁾

2. 후르비츠의 모델에 대한 도전

1) 영(Young)의 「성서 히브리어」(2003)

합의된 이론으로 인정되던 후르비츠의 연대 결정 방법론은 영(Ian Young)이 엮은 「성서 히브리어」(*Biblical Hebrew: Studies in Chronology and Typology*, 2003년)를 신호탄으로 도전을 받게 된다.²⁰⁾ 이 책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를 구성하는 다섯 편의 논문은 경우 성서 히브리어의 역사에 관한 전통적 이해 및 후르비츠의 방법론을 반복·확인하거나 보충·연장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므로 학계에 큰

(Bethesda, Md.: CDL Press, 2002), 18-19. 북 이스라엘의 방언에 관한 우리말 연구로는 렌드스버그의 제자인 유윤중 교수의 “호세아서에 나타난 북이스라엘 히브리어”, 「구약논단」, 11집 (2001년 10월), 71-90을 참조하라. 또한 유윤중, “구약성서 히브리어 변이의 구성요인들과 지역 방언과의 관계에 관하여”, 「구약논단」, 9집 (2000년 10월), 289-309는 히브리어 변이의 요인을 다양하게 설명하면서 북왕국의 히브리어에 관해서도 논의한다(특히 295-306쪽).

19) 후르비츠와 그의 방법론을 따르는 학자들에 대한 개관으로는 Ian Young, Robert Rezetko, and Martin Ehrensverd, *Linguistic Dating of Biblical Texts* (2 vols.; London: Equinox, 2008), 1:10-44; Kim, 윗글, 18-26을 참조하라.

20) Ian Young (ed.), *Biblical Hebrew: Studies in Chronology and Typology* (JSOTSup 369; London: T&T Clark, 2003).



충격을 주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²¹⁾ 그러나 후르비츠의 전제와 방법론에 도전하는 주장들을 담은 2부의 논문 여섯 편은 언어학적 연대 결정에 관한 논의 일반을 흔들 만한 잠재력을 지닌 연구들이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데이비스(Philip R. Davies)는 “성서 히브리어와 고대 유다의 역사: 유형학, 연대학, 상식”(Biblical Hebrew and the History of Ancient Judah: Typology, Chronology and Common Sense, 150-163쪽)에서 후르비츠와 그를 따르는 학자들이 문어체 언어와 구어체 일상어의 차이를 간과한다고 주장한다. 초기 성서 히브리어와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형태가 다른 것은 맞지만 이들 언어는 포로기 이후에 각각 문어와 구어로 공존했을 수 있다. 초기 성서 히브리어가 포로기 이전의 유다 방언에 뿌리를 두었고 그것을 모방했었을 테지만 그 사용된 시기는 포로기 이후였다. 데이비스는 표준 바빌로니아어(Standard Babylonian)를 예로 든다. 제2

21) 1부를 구성하는 논문들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에스콜트(Mats Eskhult)의 “The Importance of Loanwords for Dating Biblical Hebrew Texts”(8-23쪽)는 성경 본문의 아람어, 이집트어, 아카드어, 페르시아어 차용어를 분석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이들은 성서 히브리어의 역사에 관한 전통적 이해(예컨대 후르비츠의 모델)를 지지한다. 예컨대, 페르시아어 차용어는 페르시아 시대 이후의 저작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이다. 후르비츠는 “Hebrew and Aramaic in the Biblical Period: The Problem of ‘Aramaisms’ in Linguistic Research on the Hebrew Bible”(24-37쪽)에서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관해 논의한다. 그는 두 언어의 관계가 극적으로 변한 시기가 기원전 6세기였다고 주장한다. 이후의 성서 히브리어에서는 아람어의 영향을 받은 신조어를 많이 만날 수 있다. 폴락(Frank Polak)은 “Style Is More Than the Person: Sociolinguistics, Literary Culture, and the Distinction between Written and Oral Narrative”(38-103쪽)에서 히브리 성서의 문체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리듬감 있고 동사를 많이 사용하는’(rhythmic-verbal) 구어적 스타일이고 다른 하나는 ‘복잡하고 명사를 많이 사용하는’(complex-nominal) 문어적 스타일이다. 폴락에 따르면 전자는 포로기 이전 시대(특히 초기) 성서 내러티브의 전형적 특징이고 후자는 포로기 이후의 내러티브 문체이다. 폴락의 결론은 후르비츠의 이론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셈이 된다. 렌즈버그(Gary A. Rendsburg)의 “Hurvitz Redux: On the Continued Scholarly Inattention to a Simple Principle of Hebrew Philology”(104-128쪽)는 포로기 이전 저작이라고 합의된 성서 본문들의 연대를 늦추려 하는 최근의 언어학적 연구들을 비판한다. 그는 ‘아람어화’(Aramaisms)를 세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성서 본문의 연대를 정확히 논의하기 위해서는, 북 왕국에서 초기에 사용된 지역적인 아람어화와 후기 성서 히브리어를 특징짓는 아람어화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이트(Richard M. Wright)는 “Further Evidence for North Israelite Contributions to Late Biblical Hebrew”(129-148쪽)에서 후르비츠의 방법론과 그것을 본떠 만든 렌즈버그의 이스라엘 히브리어(Israelian Hebrew)의 특징을 규정하는 방법론을 이용하여 포로기 이전 본문에 들어 있는 북 이스라엘 히브리어의 특징 6 가지를 분석한다.



천년기 중반부터 사용된 이 방언은 1000년이 넘도록 거의 안 변했는데, 히브리어의 상황도 이와 비슷했을 수 있다. 필경사들의 전통 속에서 포로기 이전 히브리어의 형태가 포로기 이후 시대까지 온전히 간직됐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에렌스베르드(Martin Ehrensverd)의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Linguistic Dating of Biblical Texts, 164-188쪽)은 후기 성서 히브리어와 초기 성서 히브리어가 설사 다르더라도 그 차이는 상대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일종의 실험을 한다. 후르비츠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포로기 이후에 저작된 예언서들(예컨대 이사야 40-66장; 요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언어를 살핀 것인데, 그 결과는 이 예언서들이 초기 성서 히브리어로 쓰였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책들에 나타나지 않는다. 또 학자들이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이라고 지적하는 소수의 것들은 기껏해야 잠정적으로만 후기 성서 히브리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둘째, 이 예언서들이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을 소수 사용했다고 혹 생각하더라도 이들은 여전히 초기 성서 히브리어 본문으로 분류돼야 한다. 그 이유는 “[전형적인] 초기 성서 히브리어 본문이라 하더라도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들—때로는 분명한—을 보이기 때문이다.”²²⁾ 에렌스베르드는 이 책들의 히브리어를 ‘포로기 이후의 초기 성서 히브리어’(postexilic EBH)라고 부른다.

나우데(Jacobus Naudé)는 “언어 변화와 산포의 관점에서 본 성서 히브리어의 전이들”(The Transitions of Biblical Hebrew in the Perspective of Language Change and Diffusion, 189-214쪽)에서 ‘언어 변화’(linguistic change)와 ‘언어 산포’(linguistic diffusion)를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에스겔, 에스라, 역대기 등에 있는 후기 성서 히브리

22) Ehrensverd, “Linguistic Dating”, 176.



어 특징들의 분포를 살핀 후 주장하길, 성서 히브리어를 포로기를 기준으로 초기의 것과 후기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히브리어의 변화가 결정적인 시기에 전면적으로 일어났다는 이해는 잘못된 것이다. 변화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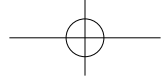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레제트코(Robert Rezetko)는 “성서 히브리어의 연대 결정하기”(Dating Biblical Hebrew: Evidence from Samuel-Kings and Chronicles, 215-250쪽)에서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역대기의 언어 특징 16개를 분석했는데, 그에 따르면 역대기의 언어가 사무엘-열왕기의 언어보다 늦다는 주장은 잠정적일 뿐이다. “역대기를 포함한 ‘후기’ 성서 히브리어 저작들의 특징적 언어 요소들은 다만 스타일일 뿐이다. 그것들은 통시적인 의의가 없으며, (엄밀히 말해서) 비연대기적 요소들-지역 방언, 양층언어현상(diglossia), 사본 전승 및 편집 등-로 설명될 수 있다.”²³⁾ 레제트코는 더 나아가, “사무엘-열왕기와 역대기의 언어에 관한 연구는 이 책들의 문학적 저작이나 발전 과정에 관한 전제들과는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역대기가 사무엘-열왕기보다 (매우 많이) 늦으며, 그것을 사용하고 수정했다”라는 전제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²⁴⁾ 레제트코에 의하면, 이것은 ‘문학-언어적 순환논법’(literary-linguistic circularity)이다.²⁵⁾

탈시르(David Talshir)는 “제2 성전기 히브리어의 거소와 역사”(The Habitat and History of Hebrew during the Second Temple Period, 251-275쪽)에서 후기 성서 히브리어와 미시나 히브리어의 기원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다. 초기 성서 히브리어는 예후드(Yehud)에서 기원전 5세기 중반까지 사용되었는데 바로 이 시기에 바빌론에서 발달한,

23) Rezetko, “Dating Biblical Hebrew”, 222.

24) 윗글, 239.

25) 윗글, 240.



아람어의 영향을 받은 후기 성서 히브리어가 에스라 귀환 공동체와 함께 들어왔다는 것이다. 두 방언은 제2 성전기에 독립적으로 발전했고, 그 결과 유다 저지대에서는 초기 성서 히브리어가 미시나 히브리어로, 예후드에서는 후기 성서 히브리어가 콤란 히브리어로 발전했다고 탈시르는 주장한다.

영은 “후기 성서 히브리어와 히브리어 명문들”(Late Biblical Hebrew and Hebrew Inscriptions, 276-311쪽)에서 초기 성서 히브리어와 왕정기 명문(銘文)들의 히브리어가 같다는 전통적인 이해를 반박한다. 둘이 비슷하긴 하지만 같지는 않으며, 더욱이 명문들의 히브리어는 후기 성서 히브리어와도 연결점이 있다. 영은 명문들의 히브리어는 독립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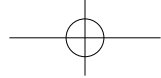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2) 저널 「히브리어 연구」 45-46 (2005-2006)에서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 전까지

영이 엮은 「성서 히브리어」 이후 후르비츠의 방법론과 히브리어의 통시적 접근법에 관한 연구가 찬반 양 진영에서 계속 발표되었다. 2004년, 2005년에는 북미 연례 성서학회(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Annual Meeting)에서 이 주제에 관한 특별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이때 발표된 논문들이 저널 「히브리어 연구」(*Hebrew Studies*) 2005년과 2006년 호에 실렸다.²⁶⁾ 여기서는 이 저널에 실린 논문들을 논의하고, 더하여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Linguistic Dating of Biblical Texts*, 2008년) 이전에 발표된 다른 짧은 연구들을 살핀다(이 책에 관해서는 아래를 보라).²⁷⁾

「히브리어 연구」 2005년 호는 세 편의 논문을 담고 있다. 이 중 요스

26) *Hebrew Studies* 46 (2005), 321-376; *Hebrew Studies* 47 (2006), 83-210.

27) Young, Rezetko, and Ehrensverd, 위클.



텐(Jan Joosten)의 “구문에 반영된 고전 성서 히브리어와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차이”(The Distinction between Classical and Late Biblical Hebrew as Reflected in Syntax, 327-339쪽)는 전통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초기 성서 히브리어와 후기 성서 히브리어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음을 두 가지 논의를 통해 주장한다. 첫째, 동사 구조와 체계에 있어서 두 히브리어 형태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며, 특히 후기의 것은 초기의 것보다 유형적으로(typologically) 더 후대의 모습을 띤다. 둘째, 초기 성서 히브리어의 구문은 포로기 이전 히브리어 명문들에서 볼 수 있는 구문과 매우 비슷하다. 요스텐은 초기 성서 히브리어의 수명을 기원전 500년경 이후까지 늘릴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영의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의 불가능성”(Biblical Texts Cannot Be Dated Linguistically, 341-351쪽)이 주장하는 바는 이렇다. 첫째, 초기 성서 히브리어, 또는 그와 비슷한 어떤 언어가 포로기 이전에 사용됐겠지만, 이 언어는 포로기 이후에도 사용됐음이 분명하다. 둘째, 후기 성서 히브리어, 또는 원시적 후기 성서 히브리어(proto-LBH)가 포로기 이전에 이미 있었다. 따라서 언어학적 증거만을 가지고 본문의 연대를 결정할 수는 없다. 언어학적 증거는 다양한 증거들 중 하나일 뿐이며, (후르비츠가 주장하듯이) 가장 과학적인 증거도, 가장 우월한 증거도 아니다.

에스쿨트(Mats Eskhult)는 “성서 히브리어의 언어학적 발전의 흔적들”(Traces of Linguistic Development in Biblical Hebrew, 353-370쪽)에서 포로기 이후 산문의 특징적 구문들을 논의한다. 포로기 이후 성서 저자들은 시제, 시상, 법 등 복잡한 구문 체계를 옛 방식 그대로 재현할 능력이 없었다. 그들에겐 그들 나름의 언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은 후르비츠의 모델을 지지한다.

「히브리어 연구」 2006년 호는 다섯 편의 논문, 140여 면을 이 주제에 할애했다. 그 중 첫 번째 코포에드(Jens Bruun Kofoed)의 “상대적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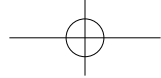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대 결정에서의 언어학적 차이의 사용”(Using Linguistic Difference in Relative Text Dating: Insights from Other Historical Linguistic Case, 94-114쪽)은 고영어(Old English)를 비롯한 유럽어에 대한 역사언어학적 작업과의 비교 연구를 시도한다. 이에 근거하여 코포에드는, “히브리어의 발전에 있어 일종의 통시적 좌표를 확립하려는 시도는 충분한 근거가 있기에, 본문의 연대를 다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최소한 본문의 상대적 연대만큼은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²⁸⁾

둘째, 폴락(Frank Polak)의 “사회언어학: 성서 히브리어의 유형학과 사회적 배경에로의 단초”(Sociolinguistics: A Key to the Typology and the Social Background of Biblical Hebrew, 115-162쪽)은 자신의 이전 연구를 보충·확장한다.²⁹⁾ 폴락에 의하면, 성서의 내러티브는 사회언어학적으로 세 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그룹은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엘리야-엘리사 이야기 등에서 만날 수 있는 짧은, 단문 위주의 문체인데, 이것은 자연적 구어체의 특징이다. 둘째 그룹은 복잡한 명사 구문과 복문 구조가 많이 나타나는, 전형적 문어체이다. 셋째 그룹은 두 번째 그룹과 비슷하지만 더하여 아람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문체이다. 폴락의 이러한 공시적 기술(記述)은 결과적으로 후르비츠의 통시적 이해를 뒷받침한다. 첫째 그룹은 성경 속에서 대개 가장 오래되었다고 생각되는 본문들에서, 둘째 그룹은 그보다는 좀 더 늦은 시기에 저작되었다고 생각되는 본문들에서, 셋째 그룹은 포로기 이후에 저작되었다고 생각되는 본문들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렌드스버그(Gary A. Rendsburg)의 “오경 속 아람어를 닮은 특징들”(Aramaic-like Features in the Pentateuch, 163-176쪽)은 ‘아람어를 닮은 특징들’(Aramaic-like features)과 ‘아람어적 특징들’(Aramaisms)을

28) Kofoed, “Using Linguistic Difference”, 113.
29) 폴락의 이전 연구는 Polak, 위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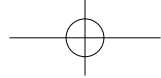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자는 포로기 이전 본문에서 발견되는 것들로, 북쪽에서 기원했거나 아람 색채를 띤 본문들에서 나타난다(창 24: 30-31; 49; 민 22-24; 신 33 등). 후자는 주로 포로기 이후 문서에서 전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아람어의 영향이다. 렌즈버그는, 만약 일부 학자들의 주장대로 오경이 페르시아 시대의 산물이라면 아람어적 특징들이나 아람어를 닮은 특징들을 오경 전반에 걸쳐 많이 만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에렌스베르드는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이 불가능한 이유”(Why Biblical Texts Cannot Be Dated Linguistically, 177-189쪽)에서 자신의 이전 논문을 재확인한다.³⁰⁾ 그는 포로기 이후 저작인 스가라 1-8장에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이 거의 없음을 확인한 후 이것이 초기 성서 히브리어 본문이라고 주장한다. 그 함의는 포로기 이후에도 초기 성서 히브리어가 사용됐다는 것이다.

「히브리어 연구」 2006년 호의 마지막 논문은 후르비츠의 “후기 성서 히브리어에 관한 최근 논쟁: 견고한 자료, 전문가의 의견, 불확실한 논증들”(The Recent Debate on Late Biblical Hebrew: Solid Data, Experts' Opinions, and Inconclusive Arguments, 191-210쪽)이다. 이 논문은 그간의 도전들에 대한 후르비츠의 종합적 답변이다.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 역대기는 전통적으로 포로기 이후 저작이자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전형적 모델로 이해됐는데, 이 이해는 여전히 옳다. 예컨대, 포로기 이전 저작에서 ‘다마스쿠스’의 히브리어 철자는 דַּמַּסְקוּס 이지만, 역대기를 포함한 포로기 이후 저작물에서는 דַּמַּשְׁק 인 경우가 많다.³¹⁾ 둘째, 후르비츠는 에렌스베르드가 일컬은 바 ‘포로기 이후의 초기 성서 히브리어’(위를 보라)가 오해라고 주장한다. “제대로 살펴보면, [학개, 스

30) 에렌스베르드의 이전 논문은 Ehrensverd, 위클.
31) Hurvitz, “Recent Debate”, 197-200.



가라, 말라기 등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고전적’ 모습은 단지 외관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된다.”³²⁾ 초기 성서 히브리어의 수명을 포로기 이후까지 늘이는 것은 잘못된 증거에 근거한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³³⁾

「히브리어 연구」 이후 논쟁을 이어간 논문이 두 편 더 있다. 레제트코의 “역대기의 ‘후기’ 보통 명사들”(‘Late’ Common Nouns in the Book of Chronicles, 2007년)은 그의 2003년 논문을 보충한다.³⁴⁾ 그는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으로 이해되는 역대기의 어휘소(lexeme) 124개를 조사한 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성서 히브리어에서 가장 생산적인 품사인 보통 명사의 분포를 볼 때, 역대기는 전체적으로 초기 성서 히브리어이며, 때로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어휘 요소가 군데군데 나타난다.”³⁵⁾ 둘째, 역대기의 ‘후기’ 보통 명사들은 대개 연대와 상관없이 설명될 수 있다. 본문 비평적, 자료 비평적 증거를 고려해 보면, 역대기에 ‘후기’ 단어들 많이 사용된 것은 포로기 이후 저자의 ‘의도적’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³⁶⁾ 레제트코의 결론은 초기 성서 히브리어와 후기 성서 히브리어는 공존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해 발표된 영의 논문 “길가메시와 사해 두루마리에서의 본문의 고정성”(Textual Stability in Gilgamesh and the Dead Sea Scrolls, 2007년)은 길가메시 서사시의 전승 과정을 비교 연구한다.³⁷⁾ 영은 길가메시

32) 윗글. 204-205.

33) 윗글. 208.

34) Rezetko, “‘Late’ Common Nouns in the Book of Chronicles”, Robert Rezetko, Timothy H. Lim, and W. Brian Aucker (ed.), *Reflection and Refraction: Studies in Biblical Historiography in Honour of A. Graeme Auld* (VTSup 113; Leiden: Brill, 2007), 379-417. 레제트코의 2003년 논문은 “Dating Biblical Hebrew.”

35) Rezetko, 윗글 (2007), 417.

36) 윗글. 379.

37) Young, “Textual Stability in Gilgamesh and the Dead Sea Scrolls”, Joseph Azize and Noel Weeks (ed.), *Gilgamesh and the World of Assyria: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Held at Mandelbaum House, The University of Sydney, 21-23 July 2004* (ANESSup 21; Leuven: Peeters, 2007), 173-184.



서사시의 표준 바벨로니아어 필사본들을 살핀 후, “길가메시 서사시의 전승 과정을 볼 때 성서 히브리어의 전승 과정 또한 높은 수준의 유동성(fluidity)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마소라 본문의 언어적 세부 항목들이 원저자의 언어를 보여 준다는 [기존의] 이해를 심각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또 다른 증거이다.” 그러므로 영에 따르면, 언어학적 증거에 근거하여 성서 본문의 연대를 결정한 작업들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³⁸⁾

3)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 및 그 이후의 도전들

그 동안 소논문으로 발표되면서 구체화되던 ‘도전자들’의 주장은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Linguistic Dating of Biblical Texts*)에서 집대성된다.³⁹⁾ 영, 레제트코, 에렌스베르트가 함께 쓴 이 2권짜리 책은 두 가지 이질적인 기능을 가진다. 하나는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에 관한 개관으로서의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전체 모델을 비판하는 기능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세 저자는 이전부터 후르비츠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 모델의 전제, 원리, 방법론을 비판해 왔는데 700페이지에 달하는 이 저작을 통해서 그 이론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역설하는 것이다. 다수의 학자가 영, 레제트코, 에렌스베르드의 주장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은 언어학적 연대 결정에 관한 논쟁을 이해할 때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자료가 되었다. 이 책은 후르비츠의 이론과 언어학적 연대 결정의 ‘모든 것’을 다루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예컨대 1권은, 방법론의 전제에

38) 윗글, 183.

39) Young, Rezetko, and Ehrensverd, 윗글. 후르비츠의 모델에 반대하는 학자들을 가리킬 때 ‘도전자들’(challengers)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이 표현은 Young (ed.), *Biblical Hebrew*에 대한 제비트(Ziony Zevit)의 서평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는 전통적인 이론에 반대하는 새로운 주장을 ‘challenger arguments’라고 불렀다. Zevit, review of Young (ed.), *Biblical Hebrew*, RBL (2004), 7 (online: http://bookreviews.org/pdf/4084_3967.pdf)을 보라.



대한 비판(3장), 방법론 자체에 관한 비판(4장), 포로기 이전의 명문들(6장), 방언과 양층언어현상(7장), 아람어(8장), 미시나 히브리어(9장), 쿰란 히브리어와 벤 시라(10장), 차용어(11장), 본문 비평(13장)을 아우른다.⁴⁰⁾

이 책이 담고 있는 도전자들의 주장과 논의는 자세하고 방대하여 본 소고에서 다 다루기는 힘들다. 그러나 그들 주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성서 히브리어와 후기 성서 히브리어가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둘이 후르비츠나 그를 따르는 학자들이 생각하는 만큼 형태와 시기에 있어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는다. 둘째, 따라서 초기 성서 히브리어와 후기 성서 히브리어는 포로기 이후의(또한 아마도 포로기 이전의) 성서 기자들이 자유롭게 택할 수 있었던 스타일들이었다. 셋째, 그러므로 언어 자료만을 가지고 성서 본문의 연대를 결정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증거/자료가 배타적으로 분포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언어학적 연대 결정 방법론이 든든하게 서기 위한 이상적인 상황은 이러할 것이다. ‘초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은 초기 책들에서만,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은 포로기 이후 책들에서만 발견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으로 이해되는 언어 요소가 포로기 이후 책들에서만 나타나지 않으며, 초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으로 이해되는 언어 요소가 초기 책들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이해가 규정하는 바는,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은 포로기 이후 책들에서 주로, 더 많이 쓰이는 언어 요소이고, 초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은 초기 책들에서 주로, 더 많이 쓰이는 언어 요소이다.⁴¹⁾

40) 영. 레제트코, 에렌스베르드의 저작에 관한 보다 자세한 개관으로는 Kim, 윗글, 26-40을 보라. 서평으로는 Jan Joosten, review of Young, Rezetko, and Ehrensävrd, *Linguistic Dating, Babel und Bibel 6* (2012), 535-542를 참조하라.

41) 김동혁, 윗글, 145-148의 보다 자세한 논의를 참조하라.



저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는 이렇다. 초기 성서 히브리어 본문과 후기 성서 히브리어 본문이 (특징들의 배타적 분포가 아닌) 경향성으로만 구분되는 것을 볼 때, 초기 성서 히브리어와 후기 성서 히브리어는 “성서 시대 전체를 통해 공존한 문어적 히브리어의 두 스타일”로 이해되어야 한다.⁴²⁾ 즉 초기 성서 히브리어는 그 시대의 보수적 스타일이었고 후기 성서 히브리어는 같은 시대의 현대적 스타일이었으며, 성서의 저지들은 두 스타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⁴³⁾

위 책이 출간된 이후 영과 레제트코는 책의 주장을 지지·확인하는 연구를 계속 발표했다. 영의 “후기 성서 히브리어와 쿨란의 하박국 주석” (Late Biblical Hebrew and the Qumran Peshar Habakkuk, 2008년)은 앞의 책의 주장을 보충한다.⁴⁴⁾ 전통적 모델이 맞다면 쿨란 히브리어에는 후기 성서 히브리어 고유의 언어 요소가 더 많이 ‘축적’돼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후르비츠의 방법론을 사용해 보니, 후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이 에스라기보다 “하박국 주석”에 더 적게 축적돼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하박국 주석”은 초기 성서 히브리어를 선호한다. 결국 영은, 성서 히브리어가 초기의 것에서 후기의 것으로 단선적으로 발전했음을 전제하는 전통적 모델을 거부하고, 둘이 동시대에 공존한 보수적, 현대적 스타일이었다고 주장한다.

영의 “욥기의 산문은 후기 성서 히브리어인가?” (Is the Prose Tale of Job in Late Biblical Hebrew?, 2009년)는 욥기 산문부에 관한 후르비츠의 1974년 연구를 반박한다.⁴⁵⁾ 후르비츠는 욥기 산문부의 언어가 포로기 이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 영은 같은 방법론을 사용해

42) Young, Rezetko, and Ehrensverd, *윗글*, 2:72.

43) *윗글*, 2:88, 89, 91.

44) Young, “Late Biblical Hebrew and the Qumran Peshar Habakkuk”, *Journal of Hebrew Scriptures* 8 (2008), Article 25.

45) Young, “Is the Prose Tale of Job in Late Biblical Hebrew?”. *Vetus Testamentum* 59 (2009), 606-629; Hurvitz, *윗글* (1974).



본문에 충분한 축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영은, 축적의 정도로 볼 때 읍기 산문부는 초기 성서 히브리어이며, 이는 초기 성서 히브리어와 후기 성서 히브리어가 포로기 이후에 공존했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한다.

레제트코의 “‘다마스쿠스’의 철자와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The Spelling of ‘Damascus’ and the Linguistic Dating of Biblical Texts, 2010년)는 후르비츠의 2006년 연구에 대한 답이다.⁴⁶⁾ 그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다마스쿠스’의 히브리어 철자가 언어학적 연대 결정과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그가 지적하는 바는 (후르비츠가 초기 성서 히브리어의 특징이라고 주장한) פורסי이 포로기 이후 책들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이다.⁴⁷⁾ 그의 결론은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이 반복적으로 선언하는 바와 같다. 초기 성서 히브리어와 후기 성서 히브리어는 성서 시대의 기자, 편집자, 필경사들이 사용한 동시대의 스타일들로, 초기 성서 히브리어는 보수적인 문어체였고 후기 성서 히브리어는 보다 현대적인, 구어체에 가까운 방언이었다는 것이다.⁴⁸⁾

3. 제3의 방법들: 다양한 언어학 이론들의 차용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2012년에 출간된 두 권의 책이다. 하나는 학계의 존경받는 문헌학자들인 밀러-나우데(Cynthia Miller-Naudé)와 제비트(Ziony Zevit)가 엮은 「성서 히브리어의 통시성」(*Diachrony in Biblical Hebrew*)이고, 다른 하나는 김동혁의 「초기 성서 히브리어, 후기 성서 히브리어, 언어 변이성」(*Early Biblical Hebrew, Late Biblical*

46) Rezetko, “The Spelling of ‘Damascus’ and the Linguistic Dating of Biblical Texts”, *Scandinavian Journal of the Old Testament* 24 (2010), 110-128. 후르비츠의 2006년 연구는 Hurvitz, “Recent Debate.”

47) 윗글,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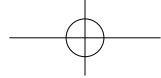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48) 윗글, 128.



Hebrew, and Linguistic Variability)이다.⁴⁹⁾ 두 책이 담고 있는 논의들의 중요한 특징은 다양한 언어학 이론과 모델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전의 논의들은 대개 언어학 이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채 문헌학적 관심으로 자료를 수집, 분류, 해석했다. 반면 두 책의 논의들은 사회언어학, 역사언어학의 모델들을 수용하면서 언어 변이, 언어 변화의 원리 등에 관한 언어학의 해석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한다.

김동혁은 사회언어학 방법론을 차용한다. 그는 언어 변화의 과정과 양상이 전통적 이해나 도전자들의 이해가 전제하는 만큼 단순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첫째, 언어 변화에 대해 사회언어학이 증명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언어 변화가 변이(variation)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즉, 어떤 언어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에는 옛 형태와 새 형태가 모두 사용되므로, 도전자들의 주장—한 본문/책 안에 초기의 형태와 후기의 형태가 모두 발견되므로 초기 성서 히브리어와 후기 성서 히브리어는 동시대 스타일이라는 주장—은 그 근거를 잃게 된다. 오히려 성경 전체에, 또한 한 책 안에, 초기와 후기의 특징이 혼재하는 것은 당시 언어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방증할 수 있다. 둘째, 사회언어학이 주는 또 하나의 통찰은 언어 변화가 진행될 때에 어떤 이는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늦게까지 거부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어떤 한 본문/책의 연대 결정이 방법론적으로 후르비츠가 생각하는 만큼 든든하지 못하다. 연대를 결정하려는 본문/책이 변화의 얼리어답터인지, 보수적 참여자인지, 평균적 참여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김동혁은 전통적 의견과 도전자들의 의견 각각의 일부를 취하고 일부를 반박한다. 그는 전통적 이해가 주장하고 도전자들이 부정하는 히브리어의 통시성(역사성)을 받아들이는 한편, 전통적 이해가 옹호하고 도전자들이 반대

49) Cynthia Miller-Naudé and Ziony Zevit (ed.), *Diachrony in Biblical Hebrew* (LSAWS 8; Winona Lake, Ind.: Eisenbrauns, 2012); Kim, 윗글 (각주 2).



하는 언어학적 연대 결정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⁵⁰⁾

「성서 히브리어의 통시성」은 무려 24명의 연구를 담고 있다. 연구들은 성서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한 여러 언어의 언어 변화와 통시성이라는 주제에 집중한다. 논문들의 다수는 2009년과 2010년 북미 연례 성서 학회에서 다섯 세션에 걸쳐 발표된 20편의 원고에서 온 것이다. 두 해에 걸쳐 히브리어의 역사, 변화, 통시성과 관련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 계기는 바로 도전자들의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의 출간이었다. 저자들 중 도전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학자는 에렌스베르드뿐이고, 나머지 저자들은 히브리어의 통시성을 지지하고 증명하고자 한다.⁵¹⁾ 1부는 밀러-나우데의 서문이고, 2부 ‘통시성의 이론적, 방법론적 관점’은 드레셔(Elan Dresher), 기본(Talmy Givón), 나우데(Jacobus Naudé), 쿡(John Cook), 홈스테트(Robert Holmstedt)의 논의로 이뤄진다. 3부는 성서 히브리어의 통시성의 실제적인 면을 다룬다. 포브스와 앤더슨(Dean Forbes/Francis Andersen)은 철자를, 블록(Yigal Bloch), 패스버그(Steven Fassberg), 에렌스베르드, 노타리우스(Tania Notarius)는 형태론적 특징들을, 바르-아셰르 시갈(Elitzur Bar-Asher Siegal), 팻-엘(Na‘ama Pat-El)은 구문적 특징들을, 후르비츠, 요스텐(Jan Joosten),

50) 여기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김동혁이 다룬 사례들인 8가지 언어 변이를 다루지 못했다. Kim, 윗글, 97-150을 참조하라.

51) 레제트코에 따르면 「성서 히브리어의 통시성」의 서문이 말해 주는 바와는 달리) 2009년에 두 세션 9편의 발표가 있었고, 2010년 세 세션 11편의 발표가 있었다. 2009년 발표자는 Zevit, Dresher, Naudé, Holmstedt, Polak, Cook, Forbes, Paul, Joosten였고, 2010년 발표자는 Bar-Asher Siegal, Ehrensward, [Roger] Good, Notarius, Rezetko, [David] Emanuel, Bloch, Cohen, Pat-El, Young, Hurvitz였다. 이 중 Good, Rezetko, Emanuel, Young의 발표문은 책에 실리지 않았다. 영과 레제트코가 자신들의 논문을 「성서 히브리어의 통시성」에 실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논문이 너무 길어서 단행본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Robert Rezetko, review of Miller-Naudé and Zevit (ed.), *Diachrony in Biblical Hebrew* (미발표 서평; 필자에게 본 자료를 보내준 레제트코 교수께 감사드린다). 레제트코와 영이 공저한 단행본은 작년 말에 출간되었다. Rezetko and Young, *Historical Linguistics and Biblical Hebrew: Steps Toward an Integrated Approach* (ANEM 9; Atlanta: SBL, 2014). SBL은 이 책의 전자 문서를 공식적으로 무료로 배포한다(http://www.sbl-site.org/publications/Books_ANEmonographs.asp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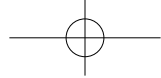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파울(Shalom Paul)은 어휘적 특징들을, 폴락(Frank Polak), 렌드스버그(Gary Rendsburg)는 사회학적 방언학적 측면을, 코헨(Chaim Cohen)은 본문비평을 논의한다. 4부는 히브리어 외 셈어 자료들을 논의하는데, 소콜로프(Michael Sokoloff)는 아람어 자료를, 램과 파르디(Joseph Lam/Dennis Pardee)는 우가리트어를 자료를, 쿠웬버그(Bert Kouwenberg)는 아카드어 자료를 살핀다. 5부는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에 관한 제비트의 긴 평가이다. 이 책에서 차용되는 언어학 이론, 가설, 모델 중 중요한 것에는 언어 변화의 'S 곡선'(S-Curve, 드레셔), '문법화'(grammaticalization, 기본), 구어와 문어의 사회언어학적 이해(폴락)가 있다.⁵²⁾

4. 결론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 방법론에 관한 오늘날의 논쟁은 10여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화했다. 1960년대 이래 40년간 학계를 이끌어 온 후르비츠의 이론은 2003년 「성서 히브리어」와 2008년의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을 통해 거센 도전을 받았다. 특히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은 도전자들의 주장에 대한 정리, 종합, 매듭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 적지 않은 학자들이 역사언어학, 사회언어학 등 언어학의 분과들이 축적해 온 지식과 모델들을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은 「성서 히브리어의 통시성」과 김동혁의 단행본이다. 오늘날에 이르러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 그리고 보다 넓은 주제로서 성서 히브리어의 통시성에 관한 연구는 더욱 활발하게 논의됨으로써, 구약학 분과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

52) Scott N. Callaham, review of *Diachrony in Biblical Hebrew*,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24 (2014), 77. 또 다른 서평으로 신성윤, "Diachrony in Biblical Hebrew 서평", 『지중해지역연구』 15권 1호 (2013년 2월), 89-94를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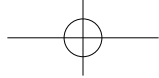


는 몹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⁵³⁾ 모쪼록 본 논문이 성서 히브리어와 그 통시적 연구라는 바다에 몸을 담그려 하는 학도들께 안내자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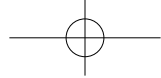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5. 참고문헌

- 김동혁,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에 관한 논쟁과 언어 변이 성 개념에 근거한 그 이론적 평가”, 『Canon&Culture』 6권 2호 (2012년 가을), 137-164.
- 김유기, “성서 히브리어의 시대 구분에 관한 최근 연구 동향”, 『성서마당』 82호 (2007년 여름), 62-71.
- 신성윤, “고전 히브리어의 성의 중성화 현상에 비추어 본 학개-스가랴-말라기 언어의 역사적 발전 상황”, 『언어와 언어학』 42집 (2008년 6월), 113-131.
- _____, “고전 히브리어의 미완료 2/3인칭 남성복수 동사 어미형태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지중해지역연구』 11권 1호 (2009년 2월), 105-131.
- _____, “후기 성서 히브리어에 나타나는 아람어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정목적어 표시어의 사용을 중심으로”, 『언어와 언어학』 45집 (2009년 6월), 137-161.
- _____, “*Diachrony in Biblical Hebrew* 서평”, 『지중해지역연구』 15권 1호 (2013년 2월), 89-94.
- 유윤중, “구약성서 히브리어 변이의 구성요인들과 지역 방언과의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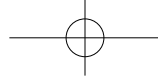
53) 지면 관계상 본 논문이 미처 다루지 못한, 작년 한 해(2014년)에 출간된 단행본 수준의 연구만 필자가 알기로 세 권에 이른다. Hurvitz, *A Concise Lexicon of Late Biblical Hebrew: Linguistic Innovations in the Writings of the Second Temple Period* (VTSup 160; Leiden: Brill, 2014); Aaron D. Hornkohl, *Ancient Hebrew Periodization and the Language of the Book of Jeremiah: The Case for a Sixth-Century Date of Composition* (SSLL 74; Leiden: Brill, 2014); Rezetko and Young, 윗글.



- 계에 관하여”, 「구약논단」 9집 (2000년 10월), 289-309.
- _____, “호세아서에 나타난 북이스라엘 히브리어”, 「구약논단」 11집 (2001년 10월), 71-90.
- Bergey, Ronald L., “The Book of Esther: Its Place in the Linguistic Milieu of Post-Exilic Biblical Hebrew Prose: A Study in Late Biblical Hebrew” (Ph.D. diss., Dropsie College for Hebrew and Cognate Learning, 1983).
- Callaham, Scott N., review of Miller-Naudé and Zevit (ed.), *Diachrony in Biblical Hebrew*,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24 (2014), 76-78.
- Davies, Philip R., “Biblical Hebrew and the History of Ancient Judah: Typology, Chronology and Common Sense”, Young (ed.), *Biblical Hebrew*, 150-163.
- Ehrensward, Martin, “Linguistic Dating of Biblical Texts”, Young (ed.), *Biblical Hebrew*, 164-188.
- _____, “Why Biblical Texts Cannot Be Dated Linguistically”, *Hebrew Studies* 47 (2006), 177-189.
- Eskhult, Mats, “The Importance of Loanwords for Dating Biblical Hebrew Texts”, Young (ed.), *Biblical Hebrew*, 8-23.
- _____, “Traces of Linguistic Development in Biblical Hebrew”, *Hebrew Studies* 46 (2005), 353-370.
- Hornkohl, Aaron D., *Ancient Hebrew Periodization and the Language of the Book of Jeremiah: The Case for a Sixth-Century Date of Composition* (Studies in Semitic Languages and Linguistics 74; Leiden: Brill, 2014).
- Hurvitz, Avi, *A Concise Lexicon of Late Biblical Hebrew: Linguistic Innovations in the Writings of the Second Temple Period* (Supplements to Vetus Testamentum 160; Leiden: Brill,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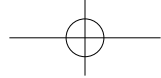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 _____. “The Date of the Prose-Tale of Job Linguistically Reconsidered”, *Harvard Theological Review* 67 (1974), 17-34.
- _____. “Hebrew and Aramaic in the Biblical Period: The Problem of ‘Aramaisms’ in Linguistic Research on the Hebrew Bible”, Young (ed.), *Biblical Hebrew*, 24-37.
- _____. “The Language of Qoheleth and Its Historical Setting within Biblical Hebrew”, Angelika Berlejung and Pierre Van Hecke (ed.), *The Language of Qohelet in Its Context: Essays in Honour of Prof. A. Schoors on the Occasion of His Seventieth Birthday* (Orientalia lovaniensia analecta 164; Leuven: Peeters, 2007), 23-34.
- _____. “Linguistic Criteria for Dating Problematic Biblical Texts”, *Hebrew Abstracts* 14 (1973), 74-79.
- _____. *A Linguistic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estly Source and the Book of Ezekiel: A New Approach to an Old Problem* (Cahiers de la Revue biblique 20; Paris: J. Gabalda, 1982).
- _____. “The Recent Debate on Late Biblical Hebrew: Solid Data, Experts’ Opinions, and Inconclusive Arguments”, *Hebrew Studies* 47 (2006), 191-210.
- _____. “The Relevance of Biblical Hebrew Linguistics for the Historical Study of Ancient Israel”, Ron Margolin (ed.), *Proceedings of the Twelfth World Congress of Jewish Studies, Jerusalem, July 29-August 5, 1997: Division A: The Bible and Its World* (Jerusalem: World Union of Jewish Studies, 1999), 21*-33*.
- _____. *The Transition Period in Biblical Hebrew: A Study in Post-Exilic Hebrew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Dating of Psalms* (Jerusalem: Bialik, 1972; in Hebrew).



- _____, “The Usage of שש and בוין in the Bibl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Date of P”, *Harvard Theological Review* 60 (1967), 117–121.
- Joosten, Jan, “The Distinction between Classical and Late Biblical Hebrew as Reflected in Syntax”, *Hebrew Studies* 46 (2005), 327–339.
- _____, review of Young, Rezetko, and Ehrensward, *Linguistic Dating, Babel und Bibel* 6 (2012), 535–542.
- Kim, Dong-Hyuk, *Early Biblical Hebrew, Late Biblical Hebrew, and Linguistic Variability: A Sociolinguistic Evaluation of the Linguistic Dating of Biblical Texts* (Supplements to Vetus Testamentum 156; Leiden: Brill, 2012).
- Kofoed, Jens Bruun, “Using Linguistic Difference in Relative Text Dating: Insights from Other Historical Linguistic Case Studies”, *Hebrew Studies* 47 (2006), 93–114.
- Miller-Naudé, Cynthia, and Ziony Zevit (ed.), *Diachrony in Biblical Hebrew* (Linguistic Studies in Ancient West Semitic 8; Winona Lake, Ind.; Eisenbrauns, 2012).
- Naudé, Jacobus A., “The Transitions of Biblical Hebrew in the Perspective of Language Change and Diffusion”, Young (ed.), *Biblical Hebrew*, 189–214.
- Nicholson, Ernest, *The Pentateuch in the Twentieth Century: The Legacy of Julius Wellhause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Polak, Frank H., “Sociolinguistics: A Key to the Typology and the Social Background of Biblical Hebrew”, *Hebrew Studies* 47 (2006), 115–162.
- _____, “Style is More Than the Person: Sociolinguistics, Literary Culture and the Distinction between Written and Oral



- Narrative”, Young (ed.), *Biblical Hebrew*, 38-103.
- Rendsburg, Gary A., “Aramaic-Like Features in the Pentateuch”, *Hebrew Studies* 47 (2006), 163-176.
- _____, *Diglossia in Ancient Hebrew* (American Oriental Series 72; New Haven, Conn.: American Oriental Society, 1990).
- _____, “Hurvitz Redux: On the Continued Scholarly Inattention to a Simple Principle of Hebrew Philology”, Young (ed.), *Biblical Hebrew*, 104-128.
- _____, *Israelian Hebrew in the Book of Kings* (Bethesda, Md.: CDL Press, 2002).
- _____, *Linguistic Evidence for the Northern Origin of Selected Psalms*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Monograph Series 43; Atlanta: Scholars, 1990).
- Rezetko, Robert, “Dating Biblical Hebrew: Evidence from Samuel-Kings and Chronicles”, Young (ed.), *Biblical Hebrew*, 215-250.
- _____, “Late’ Common Nouns in the Book of Chronicles”, Robert Rezetko, Timothy H. Lim, and W. Brian Aucker (ed.), *Reflection and Refraction: Studies in Biblical Historiography in Honour of A. Graeme Auld* (Supplements to Vetus Testamentum 113; Leiden: Brill, 2007), 379-417.
- _____, review of Miller-Naudé and Zevit (ed.), *Diachrony in Biblical Hebrew* (미발표 서평).
- _____, “The Spelling of ‘Damascus’ and the Linguistic Dating of Biblical Texts”, *Scandinavian Journal of the Old Testament* 24 (2010), 110-128.
- Rezetko, Robert, and Ian Young, *Historical Linguistics and Biblical Hebrew: Steps Toward an Integrated Approach* (Ancient Near East



Monographs 9; Atlanta: SBL, 2014). Online: http://www.sbl-site.org/assets/pdfs/pubs/9781628370461_OA.pdf

Rooker, Mark, *Biblical Hebrew in Transition: The Language of the Book of Ezekiel*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90; Sheffield: JSOT Press, 1990).

Shin, Seoung-Yun, "A Lexical Study on the Language of Haggai-Zechariah-Malachi and Its Place in the History of Biblical Hebrew" (Ph.D. diss., Hebrew University, 2007).

Talshir, David, "The Habitat and History of Hebrew during the Second Temple Period", Young (ed.), *Biblical Hebrew*, 251-75

Wright, Richard M., "Further Evidence for North Israelite Contributions to Late Biblical Hebrew", Young (ed.), *Biblical Hebrew*, 129-148.

_____, *Linguistic Evidence for the Pre-Exilic Date of the Yahwistic Source* (Library of Hebrew Bible/Old Testament Studies 419; London: T&T Clark, 2005).

Young, Ian, "Biblical Texts Cannot Be Dated Linguistically", *Hebrew Studies* 46 (2005), 341-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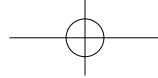
_____, "Concluding Reflections", Young (ed.), *Biblical Hebrew*, 312-317.

_____, "Introduction: The Origin of the Problem", Young (ed.), *Biblical Hebrew*, 1-6.

_____, "Is the Prose Tale of Job in Late Biblical Hebrew?", *Vetus Testamentum* 59 (2009), 606-629.

_____, "Late Biblical Hebrew and Hebrew Inscriptions", Young (ed.), *Biblical Hebrew*, 276-311.

_____, "Late Biblical Hebrew and the Qumran Peshar Habakkuk", *Journal of Hebrew Scriptures* 8 (2008), Article 25.



- _____, “Textual Stability in Gilgamesh and the Dead Sea Scrolls”, Joseph Azize and Noel Weeks (ed.), *Gilgamesh and the World of Assyria: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Held at Mandelbaum House, The University of Sydney, 21-23 July 2004* (Ancient Near Eastern Studies Supplement 21; Leuven: Peeters, 2007), 173-184.
- Young, Ian (ed.), *Biblical Hebrew: Studies in Chronology and Typology*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369; London: T&T Clark, 2003).
- Young, Ian, Robert Rezetko, and Martin Ehrensvärd, *Linguistic Dating of Biblical Texts* (2 vols.; London: Equinox, 2008).
- Zevit, Ziony, “Introductory Remarks: Historical Linguistics and the Dating of Hebrew Texts ca. 1000-300 B.C.E.”, *Hebrew Studies* 46 (2005), 321-326.
- _____, “Symposium Discussion Session: An Edited Transcription”, *Hebrew Studies* 46 (2005), 371-376.
- _____, “What a Difference a Year Makes: Can Biblical Texts Be Dated Linguistically?”, *Hebrew Studies* 47 (2006), 83-91.
- _____, review of Young (ed.), *Biblical Hebrew*, *Review of Biblical Literature* 6 (2004). Online: http://bookreviews.org/pdf/4084_3967.pdf.

검색어

성서 히브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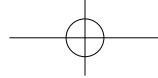
언어학적 연대 결정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

후르비츠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 연구사 | 김동혁 241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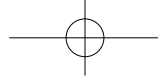
Recent Debates on the Linguistic Dating of Biblical Texts: A Survey of Scholarship

Dong-Hyuk Kim, Ph.D.

Lecturer at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s a survey of scholarship on the linguistic dating of biblical texts. Avi Hurvitz has sought to establish a dating method for biblical texts on the basis of linguistic data. He has argued, first, that linguistic change in Biblical Hebrew (= BH) during the exile was so decisive that Early Biblical Hebrew (= EBH) of the pre-exilic period is clearly distinguished from Late BH (= LBH) of the post-exilic period; and, second, that, since EBH and LBH are distinct both in form and chronology, one can date biblical texts by using linguistic data only. Hurvitz's method soon became a standard in the scholarly guild, and Hurvitz himself and other younger scholars produced studies that attempt to date biblical books/texts on linguistic grounds. These studies have treated, for example, the J source, the P source, Ezekiel, individual psalms, the prose portion of Job, Qoheleth, Esther, and so forth.

Since 2003, a challenging voice crystallized through a succession of publications: an essay collection entitled *Biblical Hebrew: Studies in Chronology and Typology* (2003), volumes 46 and 47 of *Hebrew Studies* (2005-2006), and Ian Young, Robert Rezetko, and Martin Ehrensward's *Linguistic Dating of Biblical Texts* (2008). The challenging voice, represented by Young, Rezetko, and Ehrensward, has argued the following: first, EBH and LBH are not completely distinct in form and



chronology, though it is true that they are not identical. Second, EBH and LBH should rather be considered stylistic options from which the post-exilic biblical writers were free to choose. Third, accordingly, it is impossible to date biblical texts on the basis of linguistic data only.

The present study, first, introduces Hurvitz's method of linguistic dating and surveys the studies of Hurvitz himself and his followers; second, it examines the challenging voices against Hurvitz's method; and, third, it discusses two of the most recent attempts published in 2012, *Diachrony in Biblical Hebrew*, edited by Cynthia Miller-Naudé and Ziony Zevit, and Dong-Hyuk Kim's *Early Biblical Hebrew, Late Biblical Hebrew, and Linguistic Variability*, and probes their significance in the debate.

Keywords

Biblical Hebrew
linguistic dating
linguistic dating of biblical texts
Hurvitz

- 투고일: 2015년 01월 01일
- 심사일: 2015년 01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5년 02월 06일